

# 박근혜 정부 교통시설 예산, 영남 1조1492억·호남 481억

## ■ 2013년 이후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자치단체 보조 예산

(단위: 억원, %)

권역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교통시설특별회계(합계)	6,494	100	7,468	100	8,492	100	3,746	100
수도권	2,497	38.5	3,711	49.7	4,083	48.1	2,359	63.0
강원권	46	0.7	25	0.3	14	0.2	12	0.3
충청권	495	7.6	421	5.6	299	3.5	201	5.4
호남권	75	1.2	128	1.7	199	2.3	79	2.1
영남권	3,368	51.9	3,145	42.1	3,897	45.9	1,082	28.9
제주권	13	0.2	38	0.5	0	0.0	13	0.3

## 2013~2016년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예산 결산내역

대구가 4699억원 보조받을 때 광주는 고작 259억원

文정부 SOC 줄여 복지예산 확보 계획...차이 커질 듯

정부의 교통시설 예산이 영남과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은 2016년 한 해만 반짝 이뤄진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줄곧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영남지역에 집행된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1조1492억원에 달한 반면, 호남권은 481억원에 그쳤다. 이 기간 대구가 총 4699억원을 보조받은 반면 광주시가 지원받은 예산은 고작 259억원에 그친 것을 보면 교통시설예산의 영호남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새정부가 복지 확대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향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줄여서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어서 영남·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뒤쳐진 사회간접자본을 가진 호남지역이 또다시 차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공개한 2013~2016년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이 기간 총 2조6200억원이 집행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는 1조2650억원, 영남권 1조1492억원, 강원권 97억원, 충청권 1416억원, 호남권 481억원, 제주 64억원이다.

### 충청권에도 3분의 1 수준

박근혜 정부 4년동안 집행된 교통시설 관련 예산 2조6200억원 중 90%를 웃도는 2조4142억원이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남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교통시설예산 마저도 영호남 차별이 극심했던 것이라 목소리가 나온다.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영호남 차이는 더욱 선명하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영남권에 집행된 교통시설예산은 3368억원(51.9%), 수도권 2497억원(38.5%), 호남권 75억원(1.2%)에 그쳤다. 2014년에도 영남권 3145억원(42.1%), 수도권 3711억원(49.7%)인 반면 호남권은 128억원(1.7%)에 머물렀다. 2015년에도 영남권 3897억원(45.9%), 수도권 4083억원(48.1%)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반면, 호남권은 199억원(2.3%)만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전남 교통여건 악화 원인

영남지역 중 대구시가 보조받은 교통시설예산은 지난 2013년 1461억원, 2014년 1781억원, 2015년 1381억원, 2016년 76억원이었다. 광주시는 2013년 23억원, 2014년 67억원, 2015년 142억원, 2016년 27억원을 보조받았다. 지난 4년간 대구가 4699억원을 보조받아 시내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동안, 광주시는 259억원에 만족해야 했다.

이 기간 대구는 지하철 3호선 건설에 착수하고 지하철 1호선도 연장공사를 진행하는 등 교통인프라를 확장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받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택시산업지원 관련예산의 경우 지난해 대구시에 14억원이 지원된 반면 광주시에는 3억원만 보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승용 의원은 “교통회계 지자체 보조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나 위험도로와 혼잡도로의 개선 사업에 지원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낙후지역 위주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하도록 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17 을지연습이 시작된 21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文 “을지연습, 북 도발 완벽한 대응태세 갖춰라”

### 국무회의, 살충제 계란 파동 국민 불안끼쳐드려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미 연합군은 강력한 방위태세 유지하는 한편,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뤄지도록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 첫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자리

에서 정경두 합참의장과 민선진 브록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화상통화를 통해 현 군사상황과 한·미 양국 군의 대비태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만 12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계속해오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하도록 정부와 군이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미·관·군이 합심해 강한 방위력을 구축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으로 정부 연습과 군사연습을 포함해 이날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계속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살충제 계란 파동

으로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파동에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의 손발이 맞지 않아 국민의 불안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민께서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쓸림 없는 표심... 결선투표 가나

### 국민의당 전당대회 오늘·내일 온라인 투표 ...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막판 변수로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한 K 보팅(K-voting) 온라인 투표가 22~23일 이틀간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실시될 예정이어서 호남 당원들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일단 전체 당원의 과반을 넘고 있는 호남 당원들은 어느 한 후보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기보다는 막판까지 고민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최대 주주인 안철수 후보와 정동영·전정배 후보 등 호남 당권주자를 놓고 선택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대표 경선 출마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호남 당권 주자들에게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과연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는 점에서 당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과 일부 후보 진영에서 흘러나오는 여론조사 등을 참고하면 어느 한 후보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 당원이 아닌 대부분 대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여서 신뢰도

가 낮은 만큼 실제 대표 경선 판도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상 ‘깜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와 관련, 당 내외에서는 호남 당심이 어느 한 후보에 몰리지 않고 분산된다면 결국 결선 투표 가능성이 커지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흥행과 결집을 위해 결선 투표에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결선투표가 성사된다면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데다 탈락 후보들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어 당의 결집을 이끌어 낼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 이슈가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장 등 어떤 곳이라도 당과 당원의 부름이 있으면 나갈 것”이라는 안 후보의 승부수가 무리한 당권 도전의 역풍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는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강력한 경쟁 구도를 형성, 호남의 지방선거 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호남 당원들이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남 주자들에게 기회를 쥐어 한다는 흐름도 만만치 않은데다 전정배·정동영 후보도 대표 경선 낙마는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결과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아직 늦지 않았다.  
조금 늦은 바캉스를 위한  
무안출발 해외여행!

**하나Pack 클래식** AVPF13\_TWA

전일정 5성급호텔 +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다낭 · 호이안 · 후에 5일

총 상품가격 **8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 7월 27일(목)~10월 29일(일) / 날짜별 요일 상이

✈️ 티웨이항공

🎁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30상당) 포함

**하나Pack 캐주얼** APPF10\_8Y6

세계 3대 화이트 비치  
보라카이 아잘리아리조트 4일 · 5일

총 상품가격 **6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50 /선택경비 있음

🕒 7월 29일(토)~9월 27일(수) / 날짜별 요일 상이

✈️ 팬퍼시픽 항공

🎁 크리스탈코브 호핑투어(\$60 상당), 세일링보트(\$15 상당), 오일마사지(\$15 상당) 포함

**광주일보 고객만을 위한 혜택**

셀카파티스튜디오 전시회  
무료입장권 1인당 2매 제공

전시일자 : 17년 10월 15일

장 소 :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1F 전시장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통해 예약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장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관광진흥기금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지자체별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참여에 의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 호남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지원/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n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망 2. 여행 자제 3. 필수 권고 4.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